

2025년 예산안

# 민생경제·시산업 육성 투자

# 지역소멸 대응·민생회복 초점

## ●광주시

### 소상공인 등 경제주체 정책자금 545억 저출산 극복지원사업도 2천264억 반영

광주시의 내년 예산이 2년 만에 다시 7조원 시대를 열었다. 광주시의 내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제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 545억원을 편성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배달업 지원 예산 8억3천만원과 청년에게 광주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 일자리 공제, 청년구직 활동 수당, 일경합드림 등 청년 지원사업 242억원을 투자한다.

광주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에 197억원을 투입,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 투자한다. EV배터리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 4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표준 돌봄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다운 통합돌봄' 사업에 75억원을 반영,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한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운영,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25억8천만원을 반영했다.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천264억원을 투입한다.

광주 대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정부 대표 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사업들을 확대하는 한편, 출생 가장 축하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

(인센티브) 등에 35억원을 반영,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 사업으로 추가 발굴·운영한다.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72억6천만원을 투입, 본격 추진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 예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09억원의 재원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138억원을 투입해 '광주시민 매년 1인 1책 읽기 문화' 확산, 지역 서점 활성화, 자치구별 대표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만든다. /백선강기자



광주시가 7조6천69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2년 만에 예산 7조원 시대를 다시 연 것으로 올해 예산 대비 7천27억원(10.2%) 늘었다. 광주시의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광주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다.

## ●전남도

### 일자리·경제 2천510억, 인구·청년·복지 3조5천억 출생기본수당 58억원 신규 반영...SOC 1조3천억

전남도의 내년 예산안은 12조5천436억원 규모로 지역 현안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대내외 경제 약화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핵심 시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 예산으로 2천510억원을 투입한다. 여수·광양 국가산단 등에 연간 300만㎡의 대규모 LNG 공급망을 구축, 1만3천명의 고용과 2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에 1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사업 28억

원, 건설기계부품 제조업 고도화 기반 조성 사업 27억원 등도 신규 반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70억원을 투입,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조8천9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규 반영 사업은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4억6천만원 등이다.

여수세계삼박람회는 도비를 당초 19억원에서 147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하고 내년 사업비 45억원을 반영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경우

10억원 증액한 60억원을 반영, 내년부터 지원 연령이 75세에서 80세로 확대돼 1만6천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인구·청년지원과 복지 분야에는 3조5천533억원을 투자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사업에 5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은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사업 1억원 등도 신규 반영, 살기 좋은 전남 만들기 예산을 가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4천307억원을 편성했다. 2025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37억원), 전남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9억원) 등이 신규 반영 사업이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준비사업에 172억원을 증액해 314억원을 투입하고,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70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SOC 분야에는 1조3천811억원을 배정했다. 민집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18억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6억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전남형 청년주택 건립(만원주택) 사업은 124억원을 증액해 16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분야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1천47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천465억원) 등 총 9천708억원을 편성했다. /영사원기자



전남도의 2025년 예산안은 12조5천436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2천974억원(2.4%) 증가했다. 전남도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핵심 시책 추진에 내년 예산 편성의 초점을 맞췄다.

## 시의회-광주시, 행정사무감사 파행 놓고 '정면충돌'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부실·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오전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산건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장에 출석한 고 부시장에게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시 통합공항공로국 등의 자료 부실·허위 작성과 허위 답변에 대해 질의했다. 고 부시장은 "자료 불일치와 오기가 있

었음은 분명하고 교차 확인을 통해 개선하겠지만 감사 중단까지 할 시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경고하고(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사과를 거부했다.

고 부시장은 "광주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시안도 아니고(통합공항공로국 도로과의 경우) 관용 전기차 입지와 출장계를

고광완 부시장 "감사 중단 사안 아니다" 사과 거부  
시의회 "문제 인정하고 사과 않는건 어불성설" 질타

매번 작성하지 않았던 관행이나 기관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수기 의원은 "예산을 들여 집행한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들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중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트집 잡혔다고 바라보는 광주시 책임자들의 시선이 문제"라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강수훈 의원도 "고의 여부는 감사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는 엄중한 의미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감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광주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이라며 "부시장의 답변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각 상임위 차원의 개선 요구를 하기로 했지만 고 부시장의 답변에 따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이 있어 아쉬운데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과 부시장이 보인 태도와 태도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백선강기자

알고당사다

#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